



김덕현 세단뛰기 금 "8월 세계육상서도 날자"

대구 국제육상, 16.99m로 한국 유일 메달
 "제대로 걸리면 17m50까지 난다" 자신감

한국 남자 세단뛰기의 간판인 김덕현(26·광주시청)이 2011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우승, 설 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또 한 번의 비상을 예고했다.
 1차 시기와 2차 시기는 잇달아 파울이었다. 3차 시기를 앞두고 초속 1.3m의 뒷바람이 불었다. 김덕현이 힘차게 도약했다. 16.99m. 경쟁자인 리번 빈즈(바하마)와 알렉시스 코펠로(쿠바)가 연거푸 16.97m에 그쳤다.
 한국 최고기록(17m10) 보유자인 김덕현은 4차 시기에서 한국신기록 경신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실격으로 판정돼 아쉬움이 남았다.
 김덕현은 대회 우승과 함께 세계선수권 B기준 기록(16m85)을 통과하는 기쁨도 누렸다. 마라톤과 경보에서 세계선수권 기준기록을 넘은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된 가운데 트랙 선수 중 기준기록을 충족하고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는 남자 110m 허들의 에이스 박태경(31·광주시청)에 이어 김덕현이 두 번째다.
 2005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사상 세번째이며, 2006년 김덕현과 진도출신 여자 멀리뛰기 간판 정순옥(28·안동시청) 이후 5년 만이다.

광주우 아시안게임 남자 멀리뛰기 금메달 리스트인 김덕현은 자신의 주 종목인 세단뛰기에서 우승하면서 같은 경기장에서 오는 8월 27일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망을 밝게했다.
 그는 경기 뒤 "17m 20을 목표로 뛰었는데 아쉽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갖게 됐느냐'는 질문에 "나나 그들(세계적인 선수들)이나 다 같이 17m 대를 뛴다. 나도 제대로 걸리면 17m

50까지 날 수 있다. 주눅 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벌교 삼광중학교 시절 트랙 선수로 활동했던 김덕현은 광주체고로 진학해 1학년 때 멀리뛰기로 전향했고, 2학년 때는 세단뛰기를 시작했다. 이후 조선태에 진학해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는 저력을 과시했다.
 김덕현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대표 선수는 아무도 3위 안에 들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강풍 속 나홀로 언더파

이승호 볼빅·군산CC오픈 역전 우승

이승호(25·토마토저축은행)가 한국프로골프투어(KGT) 볼빅·군산CC오픈에서 역전 우승하면서 5년 연속 승수를 쟁기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승호는 15일 전북 군산 골프장(파72·7312야드)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맞바꾸면서 이븐파72타를 적어냈다. 이로써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로 유일하게 언더파를 기록한 이승호는 최호성(38·이븐파 288타)을 2타 차로 제치고 올해 첫 승을 따냈다.
 2007년 삼성베네스트오픈에서 프로 무대 첫 우승을 장식했던 이승호는 2008년 1승, 2009년 2승을 올린 뒤 지난해 메리츠솔모로 오픈 우승에 이어 올해도 우승컵을 따내 5년 연속 승수를 추가해 통산 6승째를 달성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 8위에 그쳤던 이승호는 전반에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타를 줄였지만 후반 들어 파행진을 펼치다 15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이븐파로 4라운드를 마쳐 역전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특히 대회 기간 내내 강풍의 영향으로 컷을 통과한 73명 가운데 언더파로 대회를 마친 선수는 이승호뿐이었다.
 3라운드에서 깜짝 선두로 나선 신인 최민철(23)은 이날 8타를 까먹어 최종합계 2오버파 290타로 공동 7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양학선 "올림픽 금 꿈 아냐"

양학선이 모스크바 월드컵 시리즈 도마 결선에서 연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도마 은메달

동성고 1회전 탈락

한국 남자 체조의 간판 양학선(19·한체대)이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 주종목 도마에서 은메달을 땀다.
 광주체고 출신의 양학선은 1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끝난 FIG 월드컵 대회에 초청 선수로 참가,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6.275점을 획득하고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토마스 부엘(프랑스·16.35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난도 7.0점짜리 기술 연기를 펼친 양학선은 1차 시기에서 16.425점을 받아 16.350점에 그친 부엘을 앞서 우승 문턱까지 갔다.
 그러나 2차 시기 착지에서 흔들리며 벌점 0.1점을 받았고 결국 16.125점에 그쳐 1차 시기와 똑같이 16.350점을 받은 부엘에게 평균에서 밀렸다.
 /연합뉴스

고교야구 왕중왕전
 동성고 고교야구 주말리그 상반기 왕중왕전 1회전에서 탈락했다.
 전라권 3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한 동성고는 지난 14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 1회전에서 서울권 B조 1위인 덕수고에 3-7로 패했다.
 투·타의 안정된 전력을 바탕으로 전라권 리그에서 5전 전승으로 1위에 오른 광주일고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청주 세광고와 목동구장에서 대결을 갖는다. 전라권 2위팀인 군산상고도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 야탑고와 왕중왕전 1차전을 치른다.
 한편 주말리그의 왕중왕전에 출전하는 28개팀은 지난 3~4월 전국 8개 권역별 리그전을 통해 선발됐다. 우승팀은 6월8일 잠실구장에서 가려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OB 위기서 행운의 버디

'루키' 정연주 한국여자오픈 역전 우승

'루키' 정연주(19·CJ오쇼핑)가 태영제 2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5억원)에서 역전 우승으로 정규투어 첫 승의 기쁨을 맛봤다.
 정연주는 15일 경북 경주의 블루원보문 골프장(파72·6427야드)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4라운드 경기에서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합쳐 2언더파 70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3언더파 285타가 된 정연주는 치열하게 선두 경쟁을 펼친 '베테랑' 서보미(2언더파 286타)를 1타 차로 제치고 올해 첫 메이저 대회 우승자로 삼고 1억3000만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9월 2010 무안CC컵 드림투어 11차전에서 생애 처음으로 우승했던 정연주는 지난해 11월 정규투어 시드권을 따내고 나서 정규투어 네 번째 대회 만에 첫 승을 거뒀다.
 2008년 경희대 총장배와 2009년 전남도지사배에서 우승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정연주는 국가대표를 거쳐 지난해부터 2부 투어에서 뛰면서 실력을 가다듬었다.
 3라운드까지 공동 3위를 달렸던 정



연주는 1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힘겹게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다.
 3~4번홀 연속 버디로 1타를 줄인 정연주는 14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이 강하게 구르면서 그린을 지나 카트 도로로 흘렀다가 도로 경계석을 맞고 다시 러프로 돌아오는 행운을 경험했다.
 위기의 14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낸 정연주는 공동 선두로 치고 나섰고, 나머지 홀을 모두 파로 막아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세계를 향해 날자꾸나

12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세단뛰기 결선에서 김덕현(한국)이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 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초슬림!!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시술 가능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